



磐城平城本丸御殿跡

이와키타이라성 혼마루 어전 터

磐城平城は、いわき地方の政治支配の拠点であるだけでなく、地域社会の経済・文化の中心地としての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歴代藩主の功績や戊辰戦争など、日本、東北地方、福島県の視点から見ても歴史的に重要な場所です。

令和2年度に発掘された磐城平城本丸御殿跡からは、礎石建物跡、石組遺構、石組列、溝跡、厠跡、柱穴などが発見されました。これらは、幕末まで使用されていた本丸御殿の遺構であると推測されています。さらに、本丸御殿跡からは、18～19世紀に鍋島藩窯(佐賀県)で生産された高級磁器など、日本や中国の陶磁器が多量に出土しました。これらの陶磁器は、本丸御殿にふさわしい出土遺物であり、本丸御殿が磐城平藩主の権威と尊厳を示す場所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이와키타이라성은 이와키 지방의 정치 지배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 번주의 공적과, 보신전쟁 등을 통해 볼 때, 일본은 물론 도호쿠 지방, 후쿠시마 현의 관점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2020년도(레이와 2년도)에 발굴된 이와키타이라성 혼마루 어전 터로부터는 초석 건물 터, 석축 유구, 석축열, 구적, 측간 터, 주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막부 말기까지 사용되었던 혼마루 어전의 유구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마루 어전 터에서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사가현 나베시마번 가마에서 생산된 고급 자기 등, 일본과 중국의 도자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자기들은, 혼마루 어전에 걸맞는 출토 유물로, 혼마루전이 이와키타이라번 번주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는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